마음 쓰는대로 열리는 '삶의 길'

워싱턴에 계시는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바로 불(佛)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말하는데 종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 알고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보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지구가 만약에 버스라면 우리는 한 버스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걸상 하나를 붙들고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만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더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종교가 다른 줄 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기에 와서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불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니 각자 우리 생명의 근본 자체가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이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 있으며,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중(中)세계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건 굴려 놓으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거나 공기가 없어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뚱이가 지구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생물들이,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다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서 대기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이 몸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천차만별들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생명들이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누구입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과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나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의 근본,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 자기 몸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잉태가 돼서 나올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서 만나는 인연들이 한 몸에 모두 살고 있습니다. 한 몸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즉 말하자면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이 자체가 때에 따라서 거기 전부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바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것과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 지를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몸에 주둔해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고 도가 아니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와도 도가 아니요. 남의 마음을 유리알 들여다보듯 알아도 도가 아니요,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도 도가 아니요, 심안으로 듣는다 해도 도가 아니요, 이것이 모두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이라는 통속에서 벗어나야 바로 대뇌를 거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며 사대로 통신이 돼서 육진이라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새로이 말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은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엊그제 한 것을 알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차례 입력이 된 대로 거기에서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도 나오고 또는 세균성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이다 고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살면서 나오는 대로, 좋은 생각이라면,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게 대뇌를 거쳐서 입력이 됩니다. 대뇌를 거쳐서 사대를 통하면, 통신이 되면은 즉시 찰나에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올 때 바로 거기다 되 입력을 한다면, 거기다 놓는다면 하는 소리를 입력이라고 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는 겁니다.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입니다. 또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나에게 의사가 돼줄 수 있어 하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잘된 거는 '감사해' 하고, 잘 안되는 거는 굴려서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어, 이끌어 줄 수 있어, 해결사가 돼줄 수 있어, 모든 거를 그렇게 굴려서 놓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연방 없어지니 없어지는 그릇은 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서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세균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그 자리에 통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자리는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와 더불어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거기에 통신이 되는 통신처니까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거기에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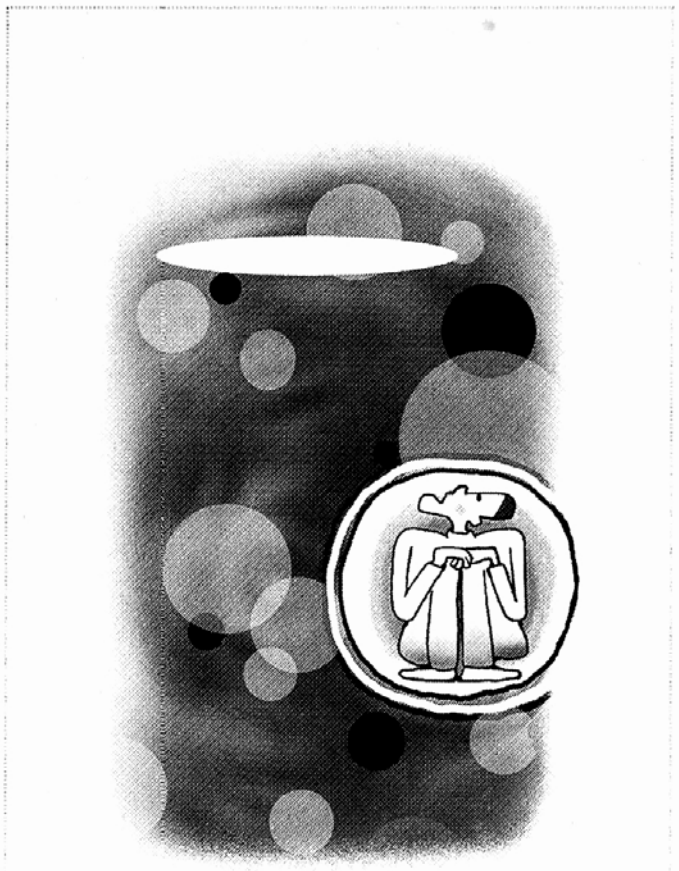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늘이 무너져도 겁내지 말고 나아가는

패기가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광대 무변한 마음 유익하게 돌려 쓰세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늠름하고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랄 때 빼고, 늙은 후에 빼고 얼마나 살면서 행복을 느꼈습니까? 행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잘못되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자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을 하나 가져보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고 돈도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나를 유익하게, 말 한마디라도 유익하게 하고 또는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주고 깨달아주고 잠자주고 똥눠주고 또는 밥 먹어주는 거 대신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마음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묘한지, 여러분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배우는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저런다고 속상해서 "너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 차려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면서 욕을 합니다. 뭐 너는 평생에 그렇게 하고 지내려느냐 그러고 욕을 막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냥 만난 인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금 방에는 금이 있고, 넝마 전에는 넝마가 있고, 깡통 전에는 깡통이 있고, 무쇠 전에는 무쇠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말입니다. 상점에 가봐도 사과는 사과끼리 놓여있고 배는 배끼리 놓여있습니다. 모두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연에 따라서 다 만난 인연들인데 만날 남의 탓을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난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차원에 따라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남의 탓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따위로 하니까 망했다는 둥, 또 잘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됐다는 둥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자꾸 싸우니까 점점 식어가죠. 그러니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는 겁니다.

공한 줄 알면 苦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서,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을 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싸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지 않는 거 같고 듣지 않는 거 같지만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나 그뿐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파산이 되고 또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했다면 아내가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것도 내가 있으니깐 저 남편을 만났으니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준다면 잘못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부드럽게 해주니 더 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니까요. 부인이 그럴 때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그럴 때도 부모가 그렇게 하고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요놈의 자식, 어디 가서 자빠져 잤느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로 붙들거나 행동으로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마음으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영을 만 개를 갖다가 한데 놓아도 영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가설이 돼있는 것처럼, 가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들어오게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식과 둘이 아닌데 너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너만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살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관해주는 지극한 마음이라면 저절로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착해질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 1: 스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명제가 '삶은 고가 아니다' 인데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로부터 은중경의 부모공경 또는 자기의 뿌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과 주인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몇 마디만 더 해주시면 아마도 오늘 오신 여러분의 기억에 좀 회생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고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한 발 뛰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 고가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하는데 찰나찰나 화해서 이거 보면 저것보고, 저거 보면 이것보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고가 있는 거지 고는 없습니다. 그러고 업보도 없구요.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팔자가 있어서 운명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지 마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인데 어떻게 고가 그 영에 붙겠습니까?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되고 잘되는 것뿐이죠. 없음이라는 건, 얼른 쉽게 해서 왜 없겠습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고라는 얘깁니다. 그러고 집착하는 게 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면, 공한 걸 안다면 고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 2: 이 먼길을 찾아오셔서 오늘 법문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자신이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와 윤회가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 없는 생을 윤회를 거듭하여 왔건만 어찌하여 새로 태어나면 다시 전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해심이 넓고 내 아님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당신은 만날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쁜 게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더러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잠자코 있으면서 당신도 내 스승이야. 둘이 아니야. 잘못하고 잘하고 일일이 따진다면 이 많은 중생,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구요. 우리는 본래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고, 같이 하는 거고 벌레까지도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과 모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볼 때에, 중간의 말한 건 생략하고, 우리는 그대로 마음을 쓰면 그 쪽에서도 반응이 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이 사랑하면은 그 쪽에서는 꼭 사랑이 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도 많이 해 봤고요. 나는 내가 실천해보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걸 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말로 떨어져선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 차원까지 됐을 때에 그 말이 필요한 거죠. 내가 딴 말을 하나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8년 6월 7일 워싱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